

고용노동부 장관, 동일 반복 재해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점검 회의 개최

- 공공부문이 앞장서 ‘동일·반복 재해 근절’ 및 ‘안전한 일터조성’ 추진 -
- 한국전력·철도공사·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장과 산재 예방대책 논의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화) 16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공공기관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동일 유형 반복 사고 근절 공공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아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동일 유형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종별·분야별 산재예방점검 회의*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부터는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건설업 20개사(5.29.), 신안산선 사고 조치(6.15.),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11개 부처, 6.30.), 철강·조선·화학·식품 제조업 15개사(7.3.), 중부권역 민·관 합동 패트롤 점검 출정식(7.8.) 동일유형 산재 사망사고 발생기업 점검·감독(8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공공기관에 반복되는 ‘떨어짐·부딪힘·끼임’ 등의 사고 유형을 중심 사고 원인과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8월29일(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중대재해가 재발한 데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고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바탕으로,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개선조치를 즉시 마련·이행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동일유형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부터 안전관리체계까지 철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는 예외없이 강력하게 추진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동일 유형 반복 사고 근절 공공기관 점검 회의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말씀

담당 부서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은경	(044-202-8804)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영은 박동진	(044-202-8814) (044-202-8809)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상원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강승훈	(044-202-8914)

붙임 1

동일 유형 반복 사고 근절 공공기관 점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일시) '26. 9. 1(화) 16:00 ~17:30 * (드레스코드)노타이 정장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5층)

□ 참 석

-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유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장
- (공공기관) 10개 공공기관장 등
 - ❖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국가철도공단, 국방과학연구소

□ 핵심 메시지

※ 대통령님 말씀('26.6.23, 국무회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똑같은 회사의 사업장에서 재반복된다는건 용납하기 어려움. 반드시 재발을 방지할 것”

- 동일 유형 산재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 제고 및 안전조치 의무 준수 촉구

□ 진행순서(안)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6:00~16:01	1'	▪ 산재 노동자를 위한 묵념	
16:01~16:05	4'	▪ 인사 말씀	장관
16:05~16:30	25'	▪ 동일 유형 반복 사고 근절 대책 ▪ 반복되는 중대사고 예방 대책	참여 공공기관
16:30~16:45	15'	▪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노동부, 기후부, 국토부
16:45~17:25	40'	▪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토의	참여 공공기관
17:25~17:30	5'	▪ 마무리 말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동일유형 반복사고 근절 공공기관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6월 국무회의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된다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고 엄중히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예측 가능한 사고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말씀하셨습니다.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 ◇ ('26.6.23. 국무회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똑같은 회사의 사업장에서 재반복된다는 건 용납하기 어려움”
- ◇ ('26.6.2. 국무회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 ◇ ('25.10.21. 국무회의) “공공부문에서 예측가능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 및 책임자 엄정 조치 할 것”

특히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떨어짐·부딪힘·끼임’ 등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절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 * 최근 10년 동일 유형 반복 사고 사례
 - 한국전력공사 떨어짐(5명), 감전(9명) / 철도공사 부딪힘(11명) 등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것은
단순한 개별 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공공기관부터 안전관리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동일 유형의 반복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도
기관장 주도의 현장점검, 노동자의 작업증지권 활성화,
위험작업에 대한 2인 1조 운영 등 안전수칙을 강화하고
피지컬 AI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주말 의왕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중대재해는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점검하고 있으며,
중대재해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바탕으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개선 조치를
즉시 마련·이행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이 산업안전의 모범이 되고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관장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직접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기관별 주요 위험 요인과 사고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25.9.15)」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공공기관 평가에 안전 분야를 확대 반영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일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목표에 걸맞게
공공기관부터 안전을 실천하고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 있는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